

“친절은 의무” 광주경찰청 치안고객만족도 개선 나선다

지난해 평가서 전국 12위 그쳐...‘치안고객만족 원년’ 선포 분기별 전략회의, 우수시책 확대 시행...“시민 지향하겠다”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하위권에 그쳤던 치안고객(시민) 만족도를 개선한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치안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2위에 그쳤다. 1년 전인 2021년 9위에서 하락했다.

치안고객만족도는 경찰청이 치안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들에게 무작위 전화 조사로 경찰관의 업무 처리 절차·응대 태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다. 반면 직무만족도 조사에서만 85.7점을 기록, 대전청(88.5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올해를 ‘치안고객만족 원년’으로 삼아 시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지난달에는 ‘고객만족 대전환 원년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고객만족 대전환 추진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모든 소속 경찰관이 ‘친절은 의무’라는 인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주된 추진 방향이다. 분기에 1차례 청장이 직접 ‘시민의 소리’ 분석 전략회의를 열어 수시로 치안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의 민원과 불만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4대 기능별(원인, 112상황실, 교통사고조사, 수사·형사) 특성에 따라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일선 경찰서가 시행 중인 우수 시책은 주기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모든 소속 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실제 서부경찰서의 눈 맞춤 인사 교육, 모니터 응대 요령 부착,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시행 중인 ‘내 사건 바로 알기 안내문’ 비치 등은 우수 시책으로 꼽히고 있다. 만족도가 저조했던 일선 경찰서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개선한다.

임용한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올해는 내부 만족도를 기반으로 고객, 시민 지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결국 치안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일선 경찰관의 표정, 대화 태도, 자세한 설명 등이 중요하다”며 “업무 고충을 줄이고 민원인을 보다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IWPG 순천시부 3월 세계여성 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 개최

(사)세계여성평화그룹 순천시부(IWPG, 지부장 정진아)는 최근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서약서’ 작성 및 소통 프로그램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통 프로그램 시간에는 ‘평화의 탑 쌓기’라는 주제로 스포츠스태킹을 진행하였다. 스포츠스태킹은 12개의 스피드 스택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면서 집중력과 순발력을 기르는 스포츠 경기이다.

회원들 간의 단합과 소통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 준비한 ‘평화의 탑 쌓기’는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 뜻을 모으자는 의미로 진행되었고,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탑을 쌓고 완성한 뒤에 ‘DPCW 10조 38항’을 스피치 해보며 평화의 가치를 떠올렸다.

또한 ‘평화서약서’ 작성을 통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UN 상정 후 결의안으로 채택되고 국제법으로 제정되어 평화로 하나 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평화라는 단어로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 너무 좋았고, 자료가 있는 부모로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DPCW 10조 38항’ 국제법이 제정될 것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IWPG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지위 국제 NGO로서 평화의 세계를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평화교육, ‘DPCW’의 지지와 촉구, 평화문화 전파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제철소, 지역 중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정서교육’에 나서

재능봉사단,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손수 만든 반찬 전달하며 말동무 되어주는 정서교육 진행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 산하 재능봉사단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정서교육’을 진행해 이웃과의 상생 정신을 실현하며 주변 이웃들에게 훈훈함을 전했다.

최근 광양제철소의 돌보고살피고 재능봉사단은 광양시 중마동 일원의 중증장애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소통과 교류 활동을 통해 정서지원을 돕는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돌보고살피고 재능봉사단은 광양지역 독거노인과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총 67명의 단원들이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방역활동과 지역사회 중증장애인과 교류 활동 등 나눔문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교육활동은 평소 이웃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들의 사회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

특히, 거동에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단원들이 직접 복지관과 각 가정에 방문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정서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교육활동은 일반적인 대화 방식이 아닌 장애인도 함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손수 만든 밑반찬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자연스러운 대화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덕분에 평소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참여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정서교육에 참가한 한 단원은 “장애인분들이 소통에 더 자신감을 얻는 모습에 단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웃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전남 선관위·도의회, 청소년 대상 선거교실 운영

33개 학교·기관 학생 1000명 참여 민주시민 교육·선거체험 2개 분야

전남도선관위는 전남도의회와 협업해 전남 지역 초·중·고 33개 학교·기관의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선거교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선거교실은 민주시민 교육과 선거체험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민주시민 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바람직한 유권자의 자세와 주권 행사 방법 등을 교육한다. 선거 체험은 선거인 본인 확인부터 투표용



지 수령, 모의투표 등 투표 절차, 개표사무원 체험 및 투표지 분류기 시연 참관 등 개표 절차를 체험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미래의 유권자들이 능동적으로 선거·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내실 있는 교육·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전남도, ‘전남사랑 전남품애향 주소갖기’ 본격 추진

기업체·공공기관 등 방문해 전입 혜택 맞춤형 안내서비스

전남도는 저출생·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문제 관심을 촉구하고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남사랑, 전남품애향 주소갖기’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사랑, 전남품애향 주소갖기’는 실제 전남에 살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직장인, 대학생, 군인 등의 전입을 장려하는 운동이다.

전남도도 22개 시군은 분기별 2주간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하고 도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전입 혜택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또 도·시군 누리집, 유관기관, 신문과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한 연중 홍보를 통해 인구

문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전입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쇠락할 수밖에 없다”며 “도내 거주자 한분 한분의 전남 주소 갖기가 지역 사랑과 주민 간 연대 증진 등 전남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남도도 22개 시군은 도민 편의 제공 및 거주자 전입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해 4년간 1천700회를 운영, 6천469명이 전입하는 등 적극행정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Korea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	급여비	비율
5분기 고소득층	240,833원	425,531원	1.7배
4분기	125,531원	215,147원	2.1배
3분기	79,147원	138,103원	2.7배
2분기	48,103원	85,697원	5.3배
1분기 저소득층	26,697원	47,147원	1.77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